

물가 급등에 민생 흔들... 지역 생계형 범죄 '고개'

광주·전남, 가격 급등한 금속류·귀금속 절도 늘어 전문가 "불경기 요인 맞물려...취약계층 지원 필요"

최근 고물가 흐름 속에 생계 부담이 커지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절도와 강도 등 민생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계절적으로 범죄가 늘어나는 2분기(4~6월)와 맞물리며 치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광주지역 강·절도 범죄는 1분기 1200여건에서 2분기 1330

여건으로 약 10.8% 증가했다. 절도 범죄는 2024년 6099건, 2025년 6007건으로 2년 연속 6000건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도 92명에서 108명으로 늘었다. 강도 범죄 역시 2023년 16건에서 2025년 21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증가가 두드러졌

다. 절도범 가운데 60대 이상은 2023년 914명에서 2025년 1006명으로 늘어난 반면, 20대는 444명에서 357명으로 감소했다. 30~50대 역시 전반적인 감소 흐름을 보였다. 전남지역도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3년 평균 강·절도 범죄는 1분기 1800여건에서 2분기 1980여건으로 약 10% 증가했다. 절도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강도 범죄는 매년 1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격이 급등한 금속류와 귀금속을 노린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신안에서는 전봇대 구리 전선을 훔친

50대 남성이 검거됐으며, 1~2월 사이 42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에서는 교량 교명판 850여개를 떼어내 고물상에 판매했던 40대 남성이 붙잡혔고, 피해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 도심에서도 금은방을 노린 범행이 이어졌다. 손님을 가장한 10대가 3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됐고, 충장로 일대에서 귀금속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범죄 증가는 유류비와 식료품, 급값 등 주요 생활비와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된다. 경찰 역시 '가격 민감 품목'을 노린 범죄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강·절도 및 생활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거침입 절도와 차량 절도 등 전통적 범죄는 물론, 생필품·유류·귀금속 등 가격 상승 품목 관련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 범행이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는 광역수사대를 투입하고, 장물 유통 경로 추적에 통해 범죄 수익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병근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과 범죄 증가 간 상관관계는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라며 "경제적 압박이 커질수록 생계형 절도와 우발적 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확대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소방관 순직' 완도창고 화재 합동조사 조사단 2개반 26명 구성...내달 19일까지 활동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합동조사가 본격화됐다. 2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개반 26명으로 구성된 '순직사고 소방 합동조사단'이 오는 5월19일까지 활동한다. 조사 완료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 조사단은 소방기술사, 건축전문가, 국토교통부 등 외부 전문가, 소방청, 소방노조, 직협 추천위원, 119현장 자원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조사단은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화재대응, 현장지휘, 안전관리 등 분야별 추가 자료 수집을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후 조사결과와 내용들이 담긴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한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박승원(44) 소방경과 노태영(30) 소방교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장애인복지시설 부스 살펴보는 시민들 20일 광주 서구청 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수어 체험 등 장애인복지시설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출소 1년도 안 됐는데...' 50대 동네 주폭 실형

광주 주택가에서 이웃을 상대로 상습적인 난동과 폭력을 일삼은 이른바 '동네 주폭'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재물손괴와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0시55분 광주 남구 한 주택가를 지나던 중 대문이 닫히는 소리에 놀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73·여)의 집 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훼손했다. 또 A씨가 던진 철제 페인트통과 돌에 B씨가 맞기도 했다. 1월 25일 오전 4시55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소란을 제지하던 건물주 C씨(86·여)를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달 28일 오전 6시47분에는 또 다른 이웃 주민 D씨(53)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전기 포트에 담긴 된장국을 여러 차례 뿌리고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은 결과에 따라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변형 어구로 EEZ 싸늘이 중국 선장 '벌금 2억'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획을 한 중국 어선 선장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2억원이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강애란 재판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52)와 B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23~28일 한국 EEZ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채 변형된 어구를 사용해 불법 어획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기간 잡어 1405kg을, B씨는

1665kg을 각각 무단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망 방식이 아닌 어획물을 가둬 포획하는 방식의 변형 어구를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돼 나포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불법 어로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단속에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벌금 2억원은 그대로 선고하되 노역장 유지기간이 2000일·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 일당 기준(10만원~30만원)을 상향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 연인 흥기 협박 20대 女, 경찰조사 대기 중 사망

평소 지병 앓아 가방 속 약 복용... "신병관리 허점" 지적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20대 여성 피의자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사망하면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경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A씨(28·여)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동구 한 아

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흥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약을 꺼내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복용한 약이 사망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당시 상황과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불안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병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현장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역 한 대학 교수는 "피의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